

아빠

육아하는

아빠를

찾아

찾아서

삼만리

아빠
찾아
삼만리



2022년 ‘아빠 찾아 삼만리’ 프로젝트는 지금은 폐관된 서울문화재단 관악 어린이 창작놀이터에서 진행되었던 ‘예술로 부모 플러스’ 프로젝트의 연장선에서 시작되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예술가들은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예술의 언어로 만나는 워크숍을 기획하였고, 이 워크숍으로 그들은 서로를 마주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나 그사이 발생한 팬데믹 상황은 예기치 않게 장기화 되었다.

문화예술 콘텐츠를 생산하는 기획자 입장에서 예술과 만남의 방식에 대해 재고할 수밖에 없었다. 기존에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하던 예술교육 워크숍 방식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예술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생산물과 결과물에 집착하는 방식에 대해 의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자녀와 함께하는 아버지 대상의 예술교육 워크숍을 모집하면 열에 아홉은 어머니가 신청했다. 주말 아침, 아버지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세우고, 주중에 자녀와 함께하지 못했다는 부채 의식과 아내의 기대에 떠밀려 워크숍 장소에 힘겹게 착륙했다. 아버지들은 대부분 착하고 성실한 분들이었다. 그 무거운 어깨에 ‘예술교육’이라는 짐을 하나 더 얹혀 드린 셈이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의 기대를 위해 휴일을 반납하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아버지들을 보면서 감사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진짜 이야기를 만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진짜 그분들의 속마음을 듣기에는 워크숍 시간은 너무 짧았다. 그분들은 그저 즐거워하는 자녀를 보며 흐뭇한 표정을 지으시곤 곧장 집으로 돌아갔다. 결국 아무런 사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 같았다.

‘아버지’라는 단어의 실체는 무엇일까?

우리 사회와 국가공동체는 ‘아버지’라는 단어에 어떤 공통된 규범을 기대하고 있다. 시민예술교육 워크숍에 나오신 아버지들은 그 규범의 기준점에 최대한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셨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아버지의 실체일까?

아버지들은 ‘아버지’이기 전에 한 사람의 개별적인 주체이다. 개별적인 주체들은 저마다의 삶의 방식과 가치를 가지고 있고 어쩌면 ‘아버지’라는 단어를 제외하곤 공통점이 거의 없는 사람들임이 틀림없다. 우리는 규범을 공유하지 않은 타자들끼리 서로 말을 걸고 대화하는 것 자체가 공동체적 합의가 무너진 시대 가장 필요한 예술적 행위라고 생각했다.

나를 포함한 우리는 중년의 남자들이다. 거기다 결혼한 지 십여 년 정도 되었고 미취학, 취학 자녀들도 있다. 생각도 고집도 제각각이고 사는 방식, 지위, 경험, 습관도 모두 다 다른 사람들이다. 그러한 사람들을 뭉뚱그려서 ‘아버지’는 이러한 거야, 좋은 아빠는 이런 것어야 하고 떠들어 대는 강의를 할 수는 없었다.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모였는데 아버지의 실체에 접근할 수 없는 역설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는 다양한 아버지의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 부러 기존의 고정된 아버지 상에서 빗겨나가 있는 아버지들을 찾기 시작하였다. 사실 고정된-비 고정된 개념 자체의 구분이 우습긴 하지만 주체성을 가지고 기존의 사회적 통념과 다른 삶의 방식을 살기 위해 모색 중이거나 잠시 멈추어 본 경험이 있는 아버지들을 찾아 대화하고자 하였다.

사회와 처가는 대체로 이러한 종류의 성인 남성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

아이가 줄줄이 달려있는데 멈추다니? 다른 길을 모색하다니? 나다운 삶을 찾기 위해 연봉 높은 직장을 그만두다니? 제정신인가? 아빠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될까?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어쩌면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이란 영화를 보면 주인공 아이는 거의 백수 같은 인디 뮤지션인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엄마와 재결합하라고 채근한다. 그러자 아빠는 “나는 네가 더 큰 일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 예를 들면 음악이라든가 세계라든가...”라며 다소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한다. 또 인디 음악이 뭐냐는 아들의 질문에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음악’이라고 답변을 한다.

어쩌면 ‘아버지’는 고정된 기능과 역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존재로서 아이와 관

계를 맺고 어떤 씨앗을 ‘툭’ 던져 주는 사람이 아닐까? 사회적 기능으로 치자면 많이 부족할 수도 있고 무언가 빠져 보일 수 있는 사람이지만 저마다의 방식으로 자신의 길을 찾으며 사회 속에서 작은 움직임과 희망을 만들어 가는, 그래서 세상이 조금은 살만한 곳이구나 하는 느낌을 조금씩만 만들어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대단한 일이 아닐까? 그리고 아이들은 그 씨앗을 가지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아버지’라는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 우발적인 대화를 시도하였다. 대화 속에서 서로를 발견하고 새로운 만남과 사건들이 발생하기를 기대했다. 한창 육아로 혹은 자기 일로 바쁘고 지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정신으로 중년의 남성들이 밤마다 몇 시간씩 대화를 나누었다. 이 자체가 매우 기이한 풍경이었다.

곳곳에 꼭꼭 숨어 있어서 아직까지 새로운 종으로서의 아빠들은 많이 발견되진 않았지만 우리가 만난 아빠들은 새롭게 재생산되고 있었다. 기존의 관습적인 역할과 기대를 벗고 자신의 삶의 방식을 새롭게 찾아가고 있었다.

새삼스럽게 주부(主婦)의 정의를 찾아보니 다음과 같았다.

‘사전적 의미로는 일반적으로 한 집안의 살림살이를 맡아 꾸려 가는 안주인을 가리키며, 가정신앙과 관련해 의례를 주관하고 직접 의례 수행자가 되는 한 집안의 핵심 여성을 일컫는 말’이라고 한다. (한국 민속 대백과사전)

의식과 의례용 음식을 준비하고 한 집안의 살림살이를 꾸려가는 일. 조선 유교 사회에서 주로 여성의 일이었다고 하지만 좀 더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주로 사제나 신전의 제사장이 집전하던 일임을 알 수 있다. 성별 역할이 아닌 한 집안의

집례와 의식 그리고 경영을 책임지는 역할이 주부의 일인 것이다.

현대산업사회에 이르러 주부의 신성한(sacred) 의미는 사라지고 국가 산업을 창출하는 가장을 보조하는 상대적인 기능만 남았다. 그래서 더 이상 주부에서 어떠한 의미나 보람도 찾을 수 없다. 주방은 한 번도 요리한 적 없어 보이는 인테리어 사진용 공간이거나 '부엌데기'의 버려진 공간이 되었고 집안일은 집례나 신성의 의미와 전혀 상관없고 자동화시키거나 배달 음식 따위로 회피해야 할 레지스트리화 되었다. 심지어 요리하는 남자도 산업적으로 고부가 가치로 성공시킬 때에만 그 지위를 인정해 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집안에서 '주부를 하는 아빠'라는 타이틀은 스스로 위축되고 움츠러들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등 한 의미로 전략한 주부(主婦)의 의미를 재전유(appropriation)하고 주체적으로 탈환하는 아빠들도 있었다.

육아를 스스로 고객 만족 서비스로 칭하고 영업 전략을 끊임없이 연구하는 아빠, 자신의 육아일기를 한 땀 한 땀 인스타그램으로 그려 매주 꾸준히 올리는 아빠, 엄마들로 둘러싸인 근린과 지역사회 안에서 아빠로서 역할을 주체적으로 찾고 학교 폭력 문제와 어린이 놀 권리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려는 아빠, 동네 살롱에서 음악회를 열고 연주를 하는 뮤지션 아빠, 시골에 휴직하고 머무르며 코로나 기간 육아하는 아빠들의 대화와 글쓰기 모임을 기획하고 모색하는 아빠. 대기업을 휴직하고 아이와 다른 삶의 공간과 시간을 갖고자 이주를 결심하고 주체적인 삶을 새롭게 모색하는 아빠! 이런 멋진 아빠들과 대화는 부가가치세로 환원될 수 없는 법이다.

우리는 '아버지'에 대한 정의를 정량적으로 판단 내리기를 멈추고 유보해야 한다.

아니 사실 세상에 대부분의 의미 있고 예술적인 일들은 대부분 정량적인 판단 내리기를 멈추고 유보해야 한다. 불확실함을 견디는 것. 모호함을 견디고 그 긴장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파도를 타는 것. 이것이 대부분의 창의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2022년 아빠 찾아 삼만리 기획자
(맨 오른쪽)윤푸름 안무가 (맨 왼쪽)최형욱 시각예술가

강득주

김동준

유태선

이다운

이준걸

홍석준



**'아빠'로서의 삶.
70,000시간을 돌아보며**

강득주
아빠픽처스(@appa_pictures)

40여 년 전 나는 ‘아빠’이기 전에 누구 씨의 첫째 아들로 세상에 태어났다.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성인이 되었고, 자립 후 30대의 끝자락에 누구 씨의 남자 친구가 되었다가, 곧 누구 씨의 남편이 되었다. 이후 내 삶은 빠른 속도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혼 후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예비 아빠’가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이 기쁨 덕분에 나는 인생의 단 한 번인 ‘신혼’을 ‘태교’와 맞바꾸게 된다. 그렇게 10개월 후 처음으로 ‘아빠’가 되었다. 아기는 한없이 나약해 보이는 존재였지만,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도 완벽했다. 첫째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을 때부터 ‘나는 아이에게 어떤 아빠가 될 것인가?’ 하는 고민에 휩싸였고 그것은 곧 코앞의 현실로 닥쳐왔다.

좋은 아빠? 좋은 아빠란 어떤 거지?

추상적이지만 구체적이지는 못했고, 일단 건강하게 잘 키우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정신없이 1년이 흘러갔다. 좋은 아빠에 대한 깊은 고민이 정리되기도 전에 다시 둘째가 태어났다. 어느새 두 아들의 아빠가 되었다. 그렇게 정신없이, 생각의 정리 없이 육아에 몰입하기를 8년. 시간으로 따지면 약 7만 시간이 넘어가는 시점이다. 그 시간 동안 나는 (자칭) ‘프로 등원러’가 되어 있었다. 최근에 서야 아내에게 아이들의 등, 하원 담당을 물려주고 현재는 ‘등원 예비군’으로 활동하며 가끔 주어지는 등원 시간을 즐기는 중이다. 한창 등, 하원을 할 때는 그 시간을 무사히 넘기기 위해 견뎌내야만 하는 시간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 시간들이 그렇게 소중한 수가 없었다. 이제야 등원 시간을 제대로 즐길 수 있게 된 것이다.



**프로 등원러가 되기까지
지나왔던 등원 과정**
(왼쪽) 등원 때마다 아이들은 어린이집 앞에서 서로 초인종을 먼저 누르겠다고 경쟁을 벌였고, (오른쪽) 등원하기 싫다며 온몸으로 유모차에서 하차하기를 거부하기도 했다.

육아 아빠로서 내 정체성은 ‘아빠픽처스’라는 가상의 회사를 통해 발현되고 있다. ‘고객’이라고는 두 아들 밖에 없지만, ‘아빠픽처스’는 이 고객들을 위한 토탈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들 고객’들의 놀이 응대와 성장 기록, 육아 성찰 등 ‘아빠픽처스’ 운영 기록은 인스타그램이라는 온라인 공간을 통해 이루어졌다. 또한 그곳에서 만난 육아 동지 엄마, 아빠들과 서로의 ‘육아’를 공유하며 소통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오프라인에서 육아하는 아빠들과 만났다. 덕분에 지난 7만 시간의 기록을 꺼내어 다른 육아 아빠들과 함께 각자의 시간을 복기하면서 내 현재 위치와 앞으로 나갈 방향을 다시 한 번 정리할 수 있었다.

육아 아빠들만 모인 수다의 시간

알고 보면 남자들도 수다스러울 수 있다. 남자들이 수다를 떨 수 있는 주제라면 ‘자동차’, ‘스포츠’ 같은 것을 떠올리겠지만 우리는 5번이나 만나서 10시간을 넘게 육아 이야기로 수다를 떨었다. 보통 ‘수다’라는 게 대부분 친한 사람끼리 편하게 만나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다’는 마음속에 쌓여 있던 감정을 쏟아내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내 감정을 쏟아내며 공감 받고 그 공감을 통해 작은 위안을 얻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수다를

떠는 행위는 그리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수다’라는 소통 방식이 남성들에게는 어색해 보이기까지 한다. 하지만 응어리진 육아에 대한 고충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일면식도 없던 아빠들이 오로지 ‘육아’라는 주제로 모일 수 있었던 것은 육아로 응어리진 감정을 쏟아내고 공감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모두 좋은 남편, 좋은 아빠로 살아가고 있지만 누구나 나름의 고충은 있었다. ‘아빠 찾아 삼만리’라는 이번 프로젝트는 아마도 그런 고충을 털어놓을 곳이 없어 고민하는 아빠들을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해주었다. 모두 어느 날 한 통의 메시지로 참여 제안을 받았고 소통에 목마른 아빠들과의 만남에서 나는 어떤 것을 기대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런 만남의 기회는 분명 쉽지 않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흔쾌히 제안을 받아들이고 참여했다. 온라인에서 화상으로 만난 네 번의 만남과 오프라인에서 대면으로 한 번의 만남을 가졌다.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총 다섯 번의 만남을 통해 서로 육아에 처한 자신의 상황과 생각을 맘껏 털어놓고 이야기하며 소통에 목말랐던 갈증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다고 본다. 나와 비슷한 처지, 혹은 나보다 더 힘든 처지에 있는 아빠들과 육아에 대한 고민과 경험을 나누며 공감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시간이었다. 아빠들끼리 대면하기 전에 온라인에서 나는 이야기는 육아 이야기보다는 ‘아버지’에 대한 복기와 어린 시절 이야기였다.

나의 아버지처럼 나도 지지해 줄 것이다.

최근에 고 신혜철의 「아버지와 나」(NEXT 1집 Home, 1992년 수록곡)라는 노래를 다시 듣게 되었다. 고등학생 때 듣고 성인이 되어 들었다가 다시 아빠가 되어 이 노래를 들었는데, 이제는 가사의 의미를 조금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었다.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다.

“내 키가 그보다 커진 것을 발견한 어느 날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서서히 그가 나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살아나갈 길은 강자가 되는 것뿐이라고 그는 얘기했다.”

“난 창공을 나는 새처럼 살 거라고 생각했다. 내 두발로 대지를 박차고 날아올라 내 날개 밑으로 스치는 바람 사이로 세상을 보리라 맹세했다.”

사사회에서 겪을 냉혹한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걱정하는 부모와 이상을 꿈꾸고 펼치고 싶은 어린 아들의 생각이 벌어지는 사춘기 시점을 절묘하게 표현한 가사다.

돌아보니 나 역시 그러했다. 앞으로 몇 년 뒤에는 노래 가사처럼 내 아들도 나에게서 멀어져 갈지도 모르겠다. 결국 나도 이제야 내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은 더 이해하게 된 것 같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아버지와 생각의 관점이 다를음을 느낀다. 생각의 격차는 나이가 들어 갈수록 더욱 커졌던 것 같다. 왜냐하면 삶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아버지가 사셨던 시대의 삶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삶은 사회적 환경,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경험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다른 경험에서 오는 가치관의 차이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때로는 좁혀지지 않을 때가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자라날 내 아들 또한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이미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다. AI와 자동화된 기계들이 인간들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고, 사람들은 점점 자신의 생계 전선에서 밀려나고 있다.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내가 자란 환경과 너무도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다. 이런 환경에서 성장해 가는 우리의 아이들이 가질 가치관과 생각의 차이는 내 생각과 점점 더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아빠로

서 아이와의 소통은 더욱 단절되지는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들과 앞으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생각의 차이와 갈등을 겪게 될지 알 수 없다. 다만 아이의 마음을 어떻게 읽어 줄 것인지 고민하고, 가능한 많은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싶다. (때로는 반대도 있었지만) 나도 아버지처럼 아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때로는 무관심하게, 지지해 주고 존중해 주는 아빠가 되고 싶다.

아이들에게 나는 아빠의 '표준값'이다.

부모들은 남의 자식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보고 듣고 하면서 내 아이와 비교 아닌 비교를 하게 된다. 하지만 아이들은 내 부모와 다른 부모를 비교하지 않는다. 보통 자식들은 다른 집 부모들도 내 부모와 똑같은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대학교 때 집에 친구 몇 명이 아버지 가게 일을 도와주러 온 적이 있었는데, 당시 아버지와 내가 마치 친구처럼 편안하게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고 친구들은 문화적 충격을 받았던 모양이다. 한참 뒤에 술자리에서 친구들은 그날 아버지와 내 모습을 보고 엄청 부러웠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아버지와 친구처럼 그렇게 편하게 이야기하는 내 모습은 자기 집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었다. 나 역시도 친구들의 그 이야기에 적잖은 문화적 충격을 받았다. 친구들도 당연히 아버지와의 관계가 나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 사건을 계기로 생각하게 되었다. 집마다 부모님의 성향이 다 똑같지 않다는 것을 말이다. 그것은 나와 내 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내 아들의 관점에서 '아빠'란 존재에 대한 인식은 지금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아이에게 표준 값이 된다는 점이다. 유아기 아이들은 자신의 부모가 보여 주는 모든 언행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비교하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을 다 바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도, 이것을 아이에게 인식시키기가 어렵다. 아이에게는 다른 집 아빠가 어떻게 육아하는지 알 수도 없을뿐더러 관심도 없을 것이다. 내가 조금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해도 아마도 그것은 아이

에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부모로서 남의 자식과 내 아이를 비교해서 불안해하지 말고, 내가 아이에게 부모로서 어떤 표준을 제시하느냐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이 아이도 나중에 성인이 되어 어린 시절을 돌아볼 때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아빠가 만들어 주는 놀잇감의 대물림

아버지에 대한 또 다른 기억 중에는 장난감에 대한 기억이 있다. 이 기억이 머릿속 어딘가 얼마나 깊은 구석에 보관되고 있었던 건지, 잊고 있다가 아빠가 되어 육아를 하면서 문득 되살아 난 기억도 상당수 있다. 그 기억 속에서 아버지는 나의 영웅이었다. 손재주가 좋으셨던 아버지는 장난감을 능숙하게 고쳐주시거나, 직접 놀잇감을 손수 만들어 주시곤 했는데, 그 기억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대 여섯 살 꼬마에게 아빠가 직접 고쳐준 장난감은 특별한 물건이기 때문이다. 감사하게도 아버지의 그 손재주는 나에게까지 이어졌고, 덕분에 나도 아이들에게 직접 다양한 놀잇감을 만들어 같이 놀기도 한다.

그중에는 내 개인적인 욕심과 어린 시절 가지지 못했던 장난감에 대한 욕구를 아



(위)한 번쓰고 버리는 케이크 상자가 아까워서 아이들이 투구로 만들어 재활용
(아래)애니메이션 'COCO(코코)'를 보고 한창 빠져있을 때 버려진 목재로 만들어 준 일명 coco간썬의 목걸

이들 놀이를 명분으로 한풀이하기도 했다. 아이들의 놀이를 관찰한 결과 특히 정형화된 장난감은 실제로 아이들의 관심을 오래 받지 못했다. 장난감에 대한 특정 호기심이 해소되고 나면 아이들은 더 이상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 않았다. 결국 중고 시장으로 방출했던 장난감이 꽤나 있었다. 반면 ‘두더지 잡기’ 놀이처럼 내가 직접 만들어서 같이 놀았던 놀잇감의 경우, 가지고 놀다가 망가지더라도 다시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하며 계속 놀이를 이어가곤 했다. 그래서 주로 돈이 들지 않는 택배 박스 같은 재활용품으로 아이들의 놀잇감을 만들어 같이 놀았다.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그것으로 아이들과 얼마나 같이 잘 노느냐이다.



(위) 재활용 박스를 이용해서 집 만들기놀이 (아래)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두더지 잡기 놀이

아빠(양육자)로서의 역할은 어디까지 일까?

아이들의 육아 환경에 대한 이슈를 나누면서 들었던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나도 그랬었고 누구나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정 시기가 되면 자기 정체성에 대해 다양한 고민을 하게 된다.

“나는 누구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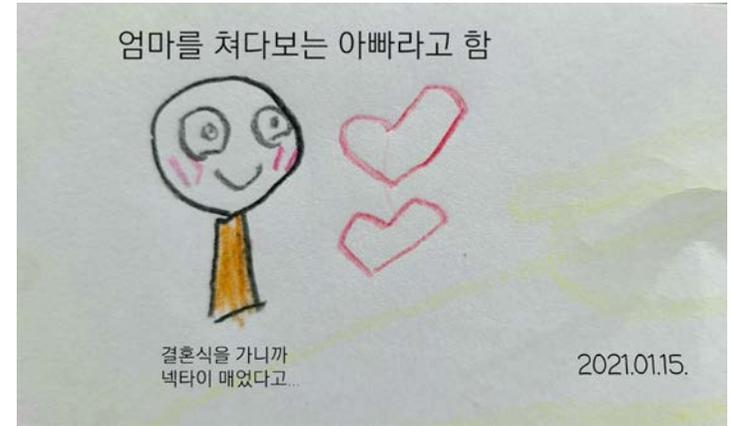
“나란 존재는 어떻게 이 세상에 오게 된 걸까?”

“과연 나는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인가?”

이런 과정은 성장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자기 정체성과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고민해 보고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성장해 가는 과정 아닐까? 이때 부모 역할은 과정을 지지해 주고 곁에서 지켜봐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부모에게도 아이에게도 손해라는 생각이다. 과연 실제로 이상황을 마주했을 때 잘 실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하나의 고민이다. 양육자인 부모의 입장에서 보통 ‘자식을 키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말속에는 꽤 넓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 같다. 또한 부모들마다 생각하는 범위나 온도 차이도 많을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큰 주체는 부모가 아니라 자녀이지 않는가? 때문에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권 문제로 부모와 갈등이 벌어지기도 한다. 유아기라면 부모가 ‘키운다’라는 말에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시점은 각각 다를 수 있으나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한 시점이라면 부모가 ‘키운다’라기 보다는 자녀가 자기 삶을 스스로 ‘키워 나간다’라고 보는 시기가 온다. 부모가 언제까지 자녀의 성장과 삶에 개입할 것인가? 이 부분은 부모로서 큰 고민거리다. 어찌 보면 자녀 스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 지켜봐 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 요즘 같은 세상에 너무 이상적이고 팔자 편한 생각일까? 어쨌든 나는 생각한다. 자녀가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지해 주고 지켜봐 줘야 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말이다.



첫째 아들이 가지고 싶어하던 핑이 장난감을 직접 돈을 모아 사겠다고 해서 집안일 아르바이트에서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 물론 아이는 목적을 달성하였다.



〈첫째가 그려준 그림인데, 이 그림을 보는 순간 아내와의 원만한 관계가 아이들에게도 느껴졌구나를 느꼈다〉

안정적인 육아환경은 원만한 부부관계가 절반 이상이다.

이번 모임을 통해 가장 많이 생각했던 이슈는 '아빠'로서 내 현재의 삶. 그리고 내 미래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내 삶이 건강하고 튼튼해야 남편 역할도 아빠 역할도 원활하게 잘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어떤 라디오 방송에서 들었던 육아와 관련한 인상 깊은 이야기가 바로 부부 관계와 육아의 상관 관계였다. 인상에 깊었던 이유는 나도 그 말에 꽤나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육아란 결국 부부간의 원만한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이었다. 아이들은 항상 부모를 보고 자란다. 부모의 원만한 관계 속에서 아이들은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기도 하고 불안감을 느끼기도 한다. 그래서 아이들의 문제는 결국 부모의 문제로 연결되는 것을 TV의 육아 상담 프로그램에서 종종 발견하게 된다. 아이들에게 사랑을 쏟아붓는 만큼 아내를 사랑하고 챙기는 아빠가 결국 육아의 고단수라는 결론이다. 항상 기억하자. 아이들은 늘 아빠를 지켜보고 있다. 내가 아이들을 관찰하고 파악하는 것 이상으로 아이들도 아빠가 어떤 성향인지, 아빠의 장, 단점을 예리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표현하지 않을 뿐이다.

'나' 잘하고 있는거지?

이번 모임으로 얻은 가장 큰 수확은 같은 아빠의 입장에서 자신이 처한 육아 환경의 대처 방식에 대한 공유, 그리고 그것을 통한 배움과 공감이었다. 지금까지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며 지향했던 육아의 접근법이나 교육에 대한 방향성이 전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니었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아이들과 교감하고 아이가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자는 생각에서는 나름의 확신도 생겼다. 육아나 교육 문제에 정답은 없다. 사례만 있을 뿐. 다만 타인의 사례가 나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답을 찾으려 하기 보다는 육아나 교육적 지향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철학을 갖는 게 더 중요하다고 느낀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아빠들과의 모임과 여기서 나는 건강한 생각들이 소중한 자양분이 되었다. 적어도 동시대를 살아가는 육아 아빠로서 나도 나름대로 잘해 나가고 있다는 약간의 자신감도 생겼고, 앞으로 더 잘해 나갈 수 있는 동력도 마련했다.

강득주

김동준

유태선

이다운

이준걸

홍석준

'주부 페르소나' 받아들이기

김동준

‘아빠 찾아 삼만리’로의 초대

작년은 나에게 참 힘든 한 해였다. 이 시대에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던 끝에 교회 개척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 세계에도 에스컬레이터는 존재했다. 더 위로 올라가는 것은 내 길이 아님을 알았다. 그래서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용기를 내어 에스컬레이터에서 뛰어내렸다. 작더라도 의미 있는 대안을 만들고 싶었다. 물론 이 결정은 아내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내려졌다. 그 과정에서 10년 넘게 사모이자 주부로 살아온 아내가 겪고 있는 힘들에 대해 새롭게 깨닫게 된 계기가 있었다. 어느 날, 힘든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내가 겪고 있는 힘들에 대해 아내에게 토로하고 있었다. 그때, 아내가 나에게 말했다.

“그래도 오빠는 설교를 하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이러했다. 나의 힘들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파생되는 고통이었다. 반면, 아내의 힘들은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아예 못하고 있는 고통이었다. 아내는 미술을 전공한 타고난 예술가이다. 그런데 지난 10여 년간 아이 셋을 키우며, 교회의 사모로 살아가며, 미술을 손에서 놓을 수밖에 없었다. 길으로 드러난 일의 양이나 스트레스로 보면 내가 더 힘들어 보였다. 그래서 아내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내가 더 힘들다’는 생각을 해 왔었다. 그런데 이 대화를 통해 처음으로 나보다 아내가 더 힘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일은 나에게 하나의 회심 사건이었다.

나에게는 지친 교회 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재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했고, 아내에게는 더 늦기 전에 ‘자기실현’의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해 보였다. 또한 생계 문제도 해결해야 했다. 우리는 결단을 내렸다. 아내가 미술 학원을 시작하고 나는 교회 개척 준비를 하며 집안일과 아이들 돌보는 역할을 좀 더 감당하기로 했다. 그렇게 2022년은 시작되었고 우리 가정의 새로운 챕터가 열렸다.

2022년 7월의 어느 날, 가까운 이웃인 김일수 님으로부터 ‘아빠 찾아 삼만리’ 모임의 게스트로 참여해 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다. 작년에 진행되었던 ‘아빠가드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미 들었던 터라 이 모임이 얼마나 좋은 모임인지 알았다. 참여하게 된다면 분명히 여러 가지로 힘을 얻고 배울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며칠간 답을 주지 못했다. 내 안에는 ‘참여하고 싶은 마음’과 ‘참여하기 싫은 마음’이 공존했다. 이 모임에 참여하기를 주저했던 이유는 모임의 타이틀 때문이었다. 특강을 소개하는 링크를 타고 들어갔을 때, 내 눈은 ‘전업 주부 아빠들’의 모임이라는 문구에 머물렀다. 그 순간 여러 가지 감정이 건드려졌다. 그중 가장 큰 감정은 ‘이 모임에 참여하면 이젠 빼도 박도 못하는 전업주부가 될 것 같은 마음’이었다. 그래서 이 모임에 참여하기가 싫었다.

사실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 제일 놀란 것은 나 자신이었다. 당시 ‘내가 주부 역할을 잘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착각이었다. 나는 수년간 해 왔던 ‘목회자’ 역할을 내려놓고 ‘주부’라는 역할을 받아들이기를 저항하고 있었다. 아내에게 이런 마음을 나눴더니 ‘내 마음이 편한 쪽으로 결정하라’고 말해 줬다. 사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마음이 불편했다. 하지만 이 모임을 피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내 마음을 더 불편하게 만들 것 같았다. 그렇게 나는 ‘아빠 찾아 삼만리’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다.

‘주부’에 공감하다

나름의 비장함(?)을 가지고 참여한 첫 모임! 김일수 님의 특강을 중심으로 ‘주부로 살아가는 남편’에 대한 여러 주제들이 다뤄졌다. 나는 모임 참여를 주저했던 마음을 솔직하게 나눴다. 사실 이 모임은 이런 마음을 나누기에 최적의 공간이었다. 많은 분들의 공감을 받으며 ‘주부’에 대한 다양한 주제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모임 중에 한 아버지께서 ‘밖에서 일해서 돈을 벌어 오는 자’와 ‘집안일과 육아를 하며 돈을 벌지 못하는 자’ 사이에 ‘심리적 우열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다. 바깥사람은 돈을 벌어 오고 사회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기에 정당하다는 것이다. 반면 안사람은 만만치 않은 육체적, 정신적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지 못하기에 위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부당한 심리적 우열 관계라는 것이다. 무릎을 칠만한 통찰이었다. 이런 대화를 ‘엄마들’이 아닌, ‘아빠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 참 놀라웠다. 나는 ‘주부 공감’에 대한 대한민국 상위 1%의 아빠 모임에 참여하고 있었다.

주부 1년차에 들어선 나에게 7, 8월은 그야말로 혹독한 계절이었다. 초등학교 2명, 유치원생 1명이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상황을 처음으로 맞닥뜨렸다. 요리, 설거지, 빨래, 청소, 수영장 관리, 텃밭 관리, 친구 초대 등 다채로운 집안일을 경험했다. 하루에 밥 3끼를 챙겨 먹인다는 것은 실로 위대한 일이었다. 마당에 설치된 수영장에 아이들이 하루에 4번씩 수영을 했고 아직 어린 막내를 4번씩 목욕시켜야 했다. 하루가 순식간에 삭제되었다. 예전에는 나의 퇴근이 늦어지는 것을 싫어하는 아내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일하다 보면 좀 늦을 수도 있는 거지. 1시간 정도 늦는 것 가지고 뭘 그러나?’ 생각했다. 이제는 아내가 평소보다 30분만 일찍 와도 입꼬리가 올라가는 내 모습을 본다. 추가적인 업무가 생겨서 1시간 늦게 퇴근하는 날이면 마음속에서 서운함이 올라오는 내 모습을 본다.

이제야 비로소 아내를 ‘공감’하기 시작했다. 이 시대의 모든 엄마들과 주부들이 위대해 보였다. 머리로 이해하려는 기나긴 노력보다는 하루라도 그 삶을 직접 살아가는 것이 ‘공감’에는 훨씬 효과적이었다. 진정한 역지사지(易地思之)가 일어나기 원한다면 ‘생각 사(思)’를 ‘행할 행(行)’으로 바꿔보기를 제안하고 싶다. 그런 면에서 ‘그 자리에서 서 보기’라는 의미를 가진 ‘understand’는 매우 통찰력 있는 단어이다. 나는 이 시대의 엄마들과 주부들을 처음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주부

들의 가사 노동에 합당한 월급을 준다면 얼마를 줘야 할까? 분명 많은 돈을 줘야 할 것이다. 그런데 주부들은 무임금으로 이 일을 한다. 내 아내도 이 일을 10년 넘게 해 왔던 것이었다. 아내에게 너무 미안했다. 그리고 참 고맙다.

‘주부’라는 타이틀이 왜 불편할까?

‘전업주부’라는 타이틀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은 비단 남성인 나에게만 있지 않았다. 이런 내 마음을 몇몇 사람들에게 나눴을 때, 아내를 포함한 많은 여성들 또한 ‘전업주부’라는 타이틀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자신에게 ‘주부’라는 이름이 붙여지기를 꺼려하게 된 걸까? 주부가 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고 하찮아서일까? 가족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주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인정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주부들은 자신의 직업란에 ‘전업주부’라고 적는 것을 그다지 유쾌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느끼기에 가사 노동의 큰 어려움은 이 일이 매우 반복적이고 소모적이어서 지루하고 비생산적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집안일은 ‘더욱 하기 싫은 일’과 그래도 ‘나름의 의미를 찾을 수 일’로 나뉘는 것 같다. 내 경우는 나름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요리’에 대한 동기가 부여는 괜찮은 편이다. 하지만 ‘설거지’와 ‘청소’는 매력 없다. 정말 반복적이고 소모적으로 보인다. 이처럼 대부분의 주부의 일은 지루하며 비생산적인 일로 여겨지는 것 같다.

사실 이보다 더 핵심적인 어려움은 ‘주부’의 일을 ‘자기실현’과 직접 연결시키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어려서부터 ‘전업주부’가 꿈이었다거나 ‘요리’ 혹은 ‘집안일’과 관련된 유명 유튜버가 아닌 다음에야 ‘주부’를 통해 직접적으로 ‘자기실

현'을 이루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전업주부'의 시간은 '누군가를 위한 희생'의 시간이자 '자기실현의 정체가'로 여겨진다.

‘주부 페르소나’ 받아들이기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나는 이를 위해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자 카를 융(C.G. Jung)의 도움을 받았다. 융은 ‘페르소나(Persona)’를 심리학 용어로 차용해 인간에 대해 설명했다. 원래 ‘페르소나’는 연극배우가 배역을 맡기 위해 썼던 가면을 말한다. 모든 사람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도덕과 질서와 가치관에 응답하며 사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의 본성을 감추고 다스리기 위한 ‘페르소나’를 쓰게 된다는 것이다. 외적인 페르소나로는 ‘직업’, ‘신분’, ‘(엄마 아빠와 같은)역할’ 등이 있고, 내적인 페르소나는 ‘성격’, ‘인격’, ‘자아 이미지’ 등이 있다. 가면이라고 하니 페르소나를 마냥 나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하지만 페르소나는 나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다. 마치 때에 맞게 갈아입는 옷과 같은 것이다. 페르소나는 주위 사람들의 요구에 응답하면서 형성되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유지시켜 준다는 면에서 매우 유용하다.

그런데 페르소나가 어떤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킬까? 융은 ‘페르소나’와 ‘자신’을 동일시 할 때 신체적, 정신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나에게 적용한다면 ‘목사’와 ‘자신’을 동일시할 때, ‘주부’와 ‘자신’을 동일시할 때 내면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페르소나는 ‘내’가 아니다. 페르소나는 나의 역할일 뿐이다. 나는 페르소나보다 더 큰 존재이다. 그리고 보면 ‘전업 주부’라는 단어 중에 특히 내 마음에 걸리는 것은 ‘전업’이라는 표현이다. 마치 ‘전업’이라는 단어가 ‘페르소나’를 ‘나’와 동일시하라고 명령하는 것처럼 들린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연 ‘전업주부’가 이 세상에 존재할까? 그가 하는 모든 일과 역할이 오직 ‘주부’인 사람이 존재할까? 사실 ‘전업주부’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전업주부’라는 용어가

다른 용어로 대체되었으면 한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페르소나를 유연하게 사용하는 사람’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페르소나와 나를 분리시키는 ‘탈동일시’가 일어나야 한다. 탈동일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페르소나와 나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자각’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탈동일시가 일어날 수 있다. 탈동일시가 일어나면 이제 페르소나를 부릴 수 있게 된다. 때마다 적절하게 페르소나를 사용하지만 결코, 그 페르소나를 ‘나’라고 여기지는 않을 수 있다. 다양한 페르소나를 구비해 두고 필요할 때마다 쓰기도 하고 벗을 수 있게 된다.

이 내용은 내가 ‘애니어그램 강의’를 할 때 항상 설명하는 이론이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지금 나는 이 이론의 실천편을 통과하고 있었다. 내가 ‘주부’라는 페르소나를 거부하고 싶었던 이유는 ‘주부’와 ‘나’를 동일시했기 때문이었다. 내가 교회 사역을 잠시 내려놓을 때 힘들어 한 이유 역시 ‘목사’와 ‘나’를 동일시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아빠 찾아 삼만리’ 모임이 나를 찾아온 주된 목적은 ‘주부’라는 페르소나를 건강하게 받아들이기 위함이었다.

after ‘아빠 찾아 삼만리’

지난 7, 8월을 돌이켜 보면 두 가지 면에서 매우 치열한 시간이었다. 첫째로, 이미 소개한 바와 같이 세 아이와 함께 방학을 통과했다는 점에서 그랬다. 둘째로, 오랜만에 ‘목사’로서의 페르소나를 맘껏 사용했다는 면에서 그랬다. 나에게 ‘아빠 찾아 삼만리’ 모임 기간은 절묘하게도 우리 지역에서 진행된 ‘청소년·청년 연합

수련회' 준비 기간과 겹쳤다. 이 기간 동안 조장 모임을 수차례 진행했고 2박 3일 수련회 기간 동안 6번의 강의와 3번의 설교를 감당했다. 정말 힘들었지만 나에게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다. 이 수련회가 없었다면, 그리고 '아빠 찾아 삼만리' 모임이 없었다면, 올 여름에 '주부 우울증'에 걸렸을지도 모른다. 돌이켜 보면 이 모든 과정이 '목사'와 '주부'는 필요에 따라 쪼갠다 벗어날 수 있는 '페르소나'라는 것을 '삶'으로 체험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어느새 슬며시 내 안에 받아들여진 '주부 페르소나'가 보인다. 그 효과는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요리를 임하는 내 모습을 통해 확연히 드러난다. 이전에는 저녁 식사 준비하는 게 귀찮아서 자주 밀키트나 외식에 의존했었다. 하지만 이제 경제적으로 장을 보고 효율적으로 재료를 소진하는 데 뿌듯함을 느끼고, 유튜브를 통해 새로운 요리를 시도해보는 데 재미를 느끼고 있다. 그에 따라 아이들에게는 요리를 잘하는 아빠로 평가받고 있다. 여전히 설거지와 청소는 좀 싫지만 이 또한 나아지리라. 솔직히 말하면 또 어떤 날은 여전히 요리하기가 싫기도 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전과 같은 저항감은 많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집안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내가 대신 한다'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실히 '주부'를, 나의 페르소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아빠 찾아 삼만리'에 참여하는 내내 느낀 또 하나의 감정이 있다. 그것은 '나는 이 모임에 낄 자격이 없다'는 느낌이다. 모임에 참여해 보니 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육아와 주부 역할'에 관련하여 한가닥 하시는 분들이셨다. 난 정말 은혜로(낙하산으로) 참여한 것이었다. 사실 이 부분도 '모임 참여'를 주저하게 된 주된 이유였다. 하지만 그 모든 '주저함'을 뚫고 모임에 참여한 것은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 정말 큰 배움을 얻었고 어디서도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커뮤니티를 만났다.

사실 나에게 '주부'에 대해 쓸 말이 많지 않다. 처음에 글을 쓰기 시작할 때는 모

임에서 나눠진 수많은 주제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 하지만 정직하게 바라보니 그 주제들 중 다수는 아직 나에게 체험되지 않은 '이론'들이었다. 모임 때 참 많은 말을 했고 때로는 아는 척을 했지만 아직 그 많은 말들을 제대로 살아 보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내 글은 딱 주부 1년차가 겪는 '정체성 혼란'에 대한 주제로 채워진 것 같다. 이 글을 빌려 '주부 페르소나'를 받아들이는 데 도움을 준 '아빠 찾아 삼만리' 모임과 멤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렇게 장착된 '주부 페르소나'가 앞으로 내 삶의 여정에 어떤 새로운 색깔을 입힐지 기대해 본다. 또한 모임에서 다루진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내 철학이 점점 더 명료해지고 내 삶이 그것을 체험하는 여정으로 나아가길 소망한다.

강득주

김동준

유태선

이다운

이준걸

홍석준



“딩동, 경로를 벗어나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

고 박완서 선생님의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라는 책이 있다. 내용도 좋지만 제목도 참 명언이라고 생각한다. 어딘가를 여행할 때 실수로 내비게이션의 안내에서 벗어나면 예쁜 목소리로 위의 멘트가 나온다. 그러면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길로 갈 때가 있는데 그 길의 경관이 더 멋있을 때가 제법 있다. 미지의 경로에 대한 기대감과 거기에 부응이라도 하듯 새로운 길이 너무나 아름다웠을 때의 기쁨. 운전을 하며 문득 “이거 결혼이랑도 비슷하잖아?” 하고 나도 모르게 내뱉었다. 인생을 여행길이라고 했을 때, 결혼은 여행의 동반자가 생긴 것이며 함께 가는 길만큼 두 배나 즐겁기도 하고 두 배나 힘들기도 한 것 아닐까 한다. 때로 툭툭거리기도 하고 뒷걸음치기도 하고 서로 등진 채 주저앉기도 하며 다시 툭툭 털고 웃으며 가는 길.

그렇다. 그 길은 더 아름답다.

하지만, 육아는 그렇지 않다.

감히 이야기하지만 육아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일지도 모른다. 결혼이 인생의 동반자와 두 손을 잡고 새로운 여행을 하는 것이라면 육아는 못 가본 길을 건다가 갑작스레 길 가운데에 생긴 웅덩이에 휩 빠지는 것. 다른 행성으로 휩 강계 이동되는 것 아닐까 생각해 본다.

육아를 하다 보면 부루마블 게임을 즐겁게 하다가 뜻하지 않게 무인도에 갇히는 기분(혹은 우주여행을 가거나), 옷놀이를 거의 이길 즈음 덜컥 잡혀 출발점으로 돌아갈 때의 기분, 게임 마리오카트에서 굉장한 기술로 신나게 1등으로 달리다가 누군가 쓴 거북이 등껍질에, 혹은 내가 설치한 바나나 껍질 트랩에 걸려 빙글

빙글 도는 사이에 양 옆으로 다른 캐릭터들이 내 앞으로 휘잉 추월해 나갈 때의 기분이 들 때가 있다. 물론 이것은 아이를 가졌을 때 기분이 아닌 아이를 기다리고 아이를 만나고 아이를 키우면서 느낀 감정 중에 조금은 부정적인 감정이기도 하다. 하지만 아빠가 되고 나서 생각보다 자주 나를 힘들게 했던 감정이기도 하다.

아빠가 된다는 건 어떤 걸까? 아이가 한창 엄마 배 속에서 쑥쑥 크며 엄마 아빠를 행복하게 해 줄 때쯤이었다. 선배 아빠 친구들에게 아빠가 된다는 것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었다. 그런데 친구는 뜬금없이 분유 데우는 법이나 기저귀 이야기만 했고 어떤 친구는 아예 말도 안 했다. 직접 해 보라는 것인지……. 유치원생, 초등학교 생 조카를 키우고 있는 누이에게 물어보자 “응? 하나도 기억 않나.”라고 하였다.

또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다. 새 학기가 시작하면서 부산의 한 대학에 출강하게 되었는데 그곳 학과장님이 수업 시간을 이틀로 나누어 주셨다. “조금 힘들어도 하루에 수업을 모두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자 교수님은 웃으시며 “하루는 부산에서 편히 자요.” 하고 말씀하셨다. (초등학생 딸을 키우는 엄마 교수님이셨다.)

그때 알았다.

‘아! 내가 미지의 세계로 가고 있구나! 우아, 내 인생에 이런 행복하고 예쁜 모험이 있을 줄이야. 끼얹호!’

하지만 아기가 막 태어났을 때는 몰랐다. 웅덩이에 빠진 건 아빠뿐이란 걸.



아이가 41개월이 된 지금, 막 태어난 아기를 어떻게 키웠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처음 아기 울음을 들으며 아기를 만났을 때, 내 인생 최고의 감동과 전율을 느꼈다. “사랑하는 하늘아(태명), 반가워. 아빠야. 아빠가 널 얼마나 기다렸는데!” 하고 이야기를 해 주었고 산후 조리원에서 진행되는 아기 목욕시키기, 모유, 분유 관리법 등의 여러 가지 교육을 열심히 녹음하고 필기하며 들었다. 아이와의 순간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하지만 편하기만 했던 조리원에서의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고 아기와 본격적으로 집에서 육아를 할 때는 교육 받은 것이 모두 하얗게 리셋 되며 가지각색의 시행착오와 심장 떨어질 것 같은 사고들, 매일 산더미처럼 불어나는 집안일 등등 그야말로 완전 새로운 육아 공부들 각개전투 하듯이 배워야 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 추억들도 쌓고 예쁘고 안정적으로 커가는 아이를 보는, 기쁨이 넘치는 시간들이 있었다. 이 새로운 삶 속으로 한 발자국씩 걸어 들어갈수록 점점 중요한 걸 멀리 떨어뜨리고 가는 기분이 들었다. 채워지지 않는 감정적 갈증이 생기는 것을 숨길 수가 없었다.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감정과 상황들이 생겼다. 어디에 도움을 청할지도 몰라서 신경이 예민해지고 아내와 갈등이 생기기도 하였다.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실천하며 애쓰지만 답 없는 질문들 속을 헤매며 계속 걸어가야 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가끔은 향기로운 꽃밭 같은, 아름다운 풍경 같은 결혼과 육아의 길을 걷기도 하고 정말 아수라장 같은 길을 걷기도 하면서 참 여러 가지를 배웠다. 예전과 참 많이 다르다. 하지만 아직 모르는 것 투성이다. 아마 계속 그럴 것이다. 나 어떡하지…?

아이는 조금 늦게 트인 말이 점점 늘면서 스스로도 자신감과 재미가 붙었다. 엄마와 아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친구들과 소통을 하고 배우고 커 가는 4살 아들을 볼 때마다 누구보다 기쁘고 기특하다. 하지만 점점 현재에, 그리고 정말 미로 같은, 바둑판같은 미래에 툭 던져진 나와 가족을 보게 된다. 아이가 크면서

가족 간의 감정 소통, 갈등의 해소, 그리고 아빠로서 찾아가야 하는 정체성 등의 이야기들은 점차 지나가는 시간 속에 희희 사라지고 눈앞의 불안들만 직시하게 된다.

전세 문제, 이사 문제, 유치원 문제, 집안일 문제부터 아이 책과 장난감 문제까지. 참으로 현실적이고 조금은 메마른 대화를 이끄는 주제가 점차 늘고 가족이 살아갈 삶의 방향성을 진지하게 이야기하거나 아이가 사는 환경, 아빠의 음악에 대한 고민, 혹은 엄마가 일할 때의 고민, 더 나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전혀 하지 않는다. 어쩌서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지점들은 점차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내가 틀린 것인지도 모르겠다. 앞으로 아이가 살아갈 세상에 대한 불안은 지금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누구나 비슷하게 느끼고 있지 않을까? 휘청거리는 경제와 국제 정세, 고금리와 집값의 파도, 저출산으로 인해 불투명해져 가는 대한민국의 미래, 화합하지 못하는 정치, 젠더 문제, 새롭게 진화하고 창궐하는 바이러스와 죽음을 불러오는 병들, 기형적인 사회 구조, 지구 전체를 뒤틀게 만드는 환경과 기후 문제 등등. 언론에서 퍼 나르고 과장하는, 불안을 자극하는 정보 홍수 속에 위에 언급한 문제들은 잘 보이지 않게 된 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 속에서 어떤 건 점차 잊어버렸고 어떤 건 점점 커졌으며 어떤 건 애써 무시했다. 답답함에 홀로 술에 의지하기도 하고 여러 책을 찾아 읽기도 하고 주변에 상담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참으로 혼란스럽다. 지금 이 시대에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 나 자신의 자리와 정체성을 조금씩 없애면서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되려고 하는 게 정말 좋은 걸까? 점점 오히려 나에겐 아픔이 되고 독이 될

걸 아는데 왜 자꾸 그렇게 되어 가는 것일까? 스스로 나약함을 극복하기 위해 열심히 운동을 하고 아이 초상화를 그리는 데 재미를 붙이기도 하며 조금씩 조금씩 다시 아빠로서, 나 자신으로서의 자리를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 와중에 ‘아빠 찾아 삼만리’라는 프로젝트를 소개를 받았고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여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프라인으로 여러 아빠들의 세상에 대한, 가정에 대한, 아빠라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면서 나도 고민과 이야기를 조금은 두서없이 털어놓기도 하면서 웬지 모르게 마음이 담담해져 갔다. 여전히 알쏭달쏭하고 다른 세상 같은 이야기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피할 수 없고 답을 낼 수 없는 질문에 대한 다양한 경험담을 들을 수 있었다. 또 먼저 경험하신 분들이 내린 결정과 답을 듣고 내 이야기를 하면서 나름의 답을 스스로 찾아갔고 그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평안해져 갔다. 더 듣고 싶고 더 만나고 싶어졌다.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내 이야기를 더 들어 달라고, 내 질문이 이것이 맞느냐고 묻고 싶었다. 온오프라인을 불참한 날들이 너무나 아쉬웠다.

그렇다면 나는 나와 가족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다시 못 가본 길을 걷는 기쁨을 함께 누리며 셋이 손잡고 길을 걷고 싶다. 때로 주저앉아 울더라도, 때로 등 돌리고 빠지고 싸우더라도 다시 서로 보듬어 주고 진심으로 이해해 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하고 때론 듣기도 하는 그런 좋은 관계가 되고 싶다.

그렇다. 혼자 할 수 없다. 가족이 도와줄 수 없는 부분을 나 혼자 할 수 없다. 물론 가족과 가장 대화를 많이 해야 하고 소통해야 하는, 고전적인 답을 따라야 할 때도 많다는 걸 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아빠들과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답을 찾는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찾아다니고 싶다.

‘아빠 찾아 삼만리’, 아이가 아빠를 찾는 것이 아닌 아빠가 스스로 아빠를 찾는 멀고 먼 길. 이 프로그램을 기획해 주시고 진행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참여하셔서 많은 경험을 공유해 주시고 내 이야기를 들어 주시고 멋진 피드백을 주신 아빠들에게 이 글을 통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두서없이 감정을 털어 낸 작은 글을 끝내며 내가 혼자 힐링하며 그린 아이 초상화를 공유합니다.



2022.10.11

성연이 아빠 유태선

강득주

김동준

유태선

이다운

이준걸

홍석준

제목

이다운
애개개 파파 (@ae.gae.gae_papa)

결혼을 하고 3개월이 지났다. 결혼이라는 이벤트에 들떴던 마음이 진정되고 나니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다. 결혼 후 나는 원하던 가정은 이루어졌지만 내가 이룬 가정 속에 살고 있지 않았다.

매일 같이 출근을 위해 7시에 집을 나서고 퇴근 후 바로 집에 와도 8시, 씻고 밥 먹고 정리하고 잠깐 쉬면 어느새 자야 할 시간. 대부분의 직장인이 그렇듯이 매일 회사에 다니느라 내가 이룬 가정에 있지 못하고 있었다. 마치 지구 곁을 뻗도는 달 같은 기분이었다. 이진 회사를 위한 삶이지 나를 위한 삶이 아니었다.

“이렇게 계속 산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언젠가 아이를 가질테고, 그럼 아내는 일을 그만두고 육아를 전담하겠구나. 그리고 나는 지금처럼 회사를 다닐테고, 그럼 난 아이를 볼 시간이 없겠구나. 그리고 아내는 힘들어하겠구나. 나도 직장 다니느라 힘들텐데 서로 많이 싸우겠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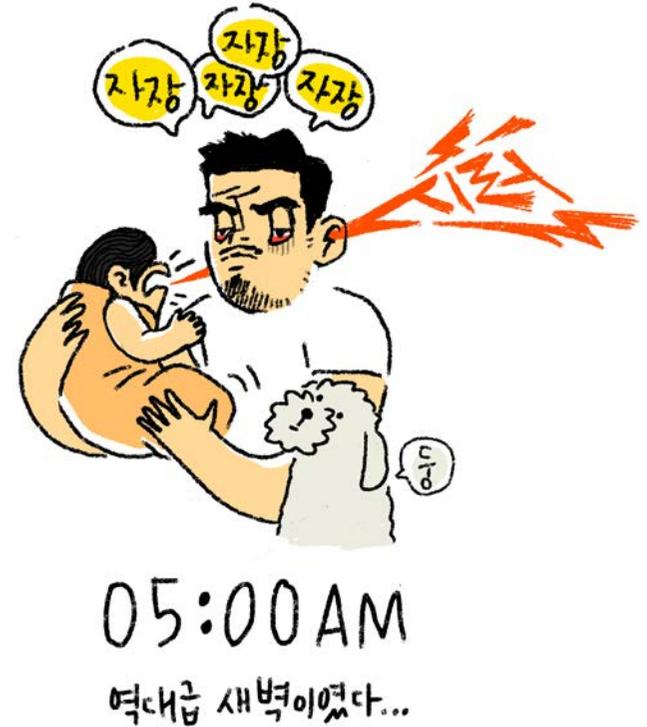
안담한 미래를 상상하고 나니 회사에 다니고 싶은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렸다. 지금 당장 달콤한 고정적 수입이 아쉽다고 다가올 고통스러운 미래를 외면할 순 없었다. 코로나가 심각하게 퍼지기 시작한 2020년 3월. 모두가 안된다고 했지만 나의 아내의 믿음을 응원삼아 난 회사를 그만두었다.



그리고 1년 후 해온이가 찾아왔다. 출산 후 힘든 아내를 대신해 ‘당연히’ 아빠인 내가 육아를 했다. 자연스럽게 아내의 몸도 빠르게 회복되었다. 해온이가 6개월 무렵 좋은 기회로 아내의 취직의 길이 열렸다. 어김없이 나는 또 ‘당연히’ 아빠인 내가 육아를 책임지고 아내의 사회 진출을 응원했다. 가정을 위한 경제활동에 성별은 중요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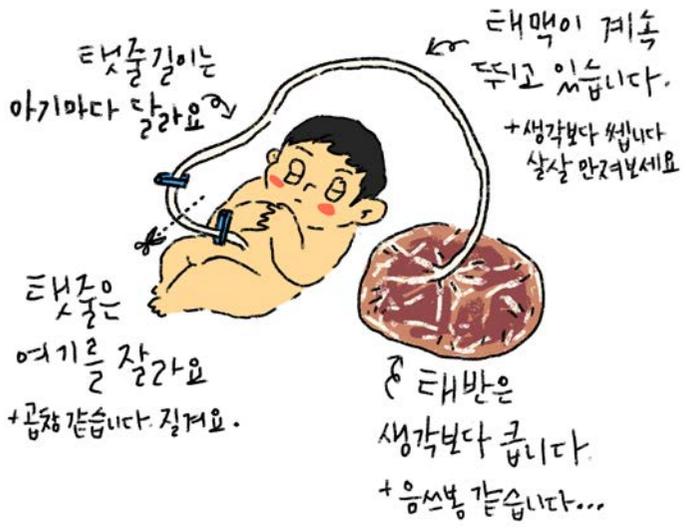
안해본 요리, 집안일, 아이 돌보는 일 어느 것 하나 익숙한 것 없었지만 열심히 아이를 돌보았다. 그렇게 금이야 옥이야 아이를 키우며 육아 스트레스도 쌓이고 육아 우울증도 겪었다. 그리고 세상 많은 엄마들이 이렇게 힘들고 외로운 일을 묵묵히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육아는 ‘돈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그림을 그리기로 했다. 돈은 안되지만 이 소중한 가치있는 일에 대해 아빠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는 메시지를 세상에 던지고 싶었다.



여기비 아빠를 위한 그림가이드

- 아기는 이걸로 나오요 -



배변은 아기를 쓰는 행동은
우렁차게 해요!!



너가요



Q&A

아기가 계속 울면
화장실은 어찌시죠?



지옥같은 천국
정말 너무 행복한걸!!!





‘아빠찾아삼만리’ 활동은 나에게 오랜동안 외롭게 외쳐대던 인스타툰을 ‘인정받았다’ 라고 느낄 수 있게 해준 징표와 같다. 선배아빠들을 만나 위로받고 힘을 얻었다. 앞으로도 ‘아빠찾아삼만리’가 꾸준히 이어져 더 많은 아빠들에게 가정과 육아와 삶에 대한 질문을 던져주면 좋겠다. 그렇게 아빠들은 스스로 답을 찾으려 할 것이고 그들의 삶은 더 좋은 쪽으로 향할 수 있을 것이다.



강득주

김동준

유태선

이다운

이준걸

홍석준

제목

이준걸

나만의 육아 철학이 있는가? 육아를 바라보는 프레임 혹은 시선은?

편한 아빠.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상태가 가장 심각한 상태라는 말이 있다. 육아의 경우는 아빠 육아가 그랬었다. 20년 전에는 아무도 여성의 전업 육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아빠는 그저 돈을 벌어오는 존재, 주말에 얼굴을 보면 다행이었고 육아는 보통 엄마의 몫이었다고 할 수 있다. 30년 전에 아버지가 내 유모차를 밀고 있었다면? 동네 어른들이 3분에 한 번씩 말을 걸거나 수군댔을 것이다.

육아 만 9년을 넘겼다. 10년 전에는 나도 으레 아빠는 20년 전에 내가 겪은 아빠 정도여도 되는 줄 알았으나, 앞서 문제를 이야기한 어떤 아들 덕에 다르게 살 수 있었다. 예비 다둥이 아빠가 됐을 때 육아휴직을 썼고 아이들과 살을 부비는 시간을 가지게 됐다. 덕분에 내가 어릴 적 아버지에게 느꼈던 묘한 긴장감을 주지 않는 편한 아빠가 됐다고 자부할 수 있다.

편한 아빠란 무엇인가.

첫째로 아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아빠다. (물론 아들은 종종 나를 부를 때 “엄마, 아 아니 아빠!”라고 하곤 했다.) 둘째로 엄마와는 다른 영역에서 아이를 포용해 줄 수 있는 존재다. 단 하나의 존재만 겪은 아이보다 다양한 존재와 상호 작용한 아이가 사회성이 좋을 수밖에 없고, 아무리 좋은 선생님도 아빠보다 더 아이를 포용하기 쉽지 않다. 마지막으로 싫을 땐 싫다고 좋을 땐 좋다고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다. ‘마음껏’이라는 말을 관계에 붙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자부는 자부일 뿐 역시 남들과 비교하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영상에 등장하는 아빠나 육아 서적 속 아빠, 또 ‘보건복지부 100인의 아빠단’ 카페의 어머니 넘치는 아빠들은 어찌나 대단한지. ‘아빠 찾아 삼만리’에서 만난 아빠들의 의지와 가치는 또 어떤가. 몇 차례 깊은 대화가 오갈 때 나는 말하기보다 듣는 것에 집중했다. 다른 아빠들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내가 처한 상황이 그리 좋지 않더라도, 유전자를 이어받은 누군가에게 대체할 수 없는 무엇이 된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다! 그러니 비교보다는 스스로를 인정하며 하루하루 편한 아빠가 되어야겠다.

최근에는 나를 반성할 일이 많다. 아이들에게 편한 아빠가 아니라 그냥 편한 아빠로 살진 않았는가 하는 고민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아내의 루틴과 내 루틴을 비교할 때 도드라진다. 아이에게 초 집중한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아내에 비하면 집에서 피곤에 절어 쓰러져 있는 아빠는 어찌나 초라한지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가 아니게 된다면 편한 아빠가 되는 일은 요원할 것이다. 반성은 반성이고 나는 나다. 엄마가 있기에 편한 아빠가 될 수 있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을 것이라 믿는다.

나답게 사는데 비주류인 삶 vs 나를 잃어버리는 대신 주류인 삶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할 때 클럽하우스 앱에 폭 빠지고 말았다. 직접 ‘작은 기획들’이라는 클럽을 열어 모더레이터도 되어 보고, 시각 예술 작가들의 스튜디오에 참여하기도 했다. 끝이 없을 것 같은 토론의 바다에 몸을 신기도 하고, 깊이 있는 영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잠들기도 했다. ‘부모가 클럽에 가면 애는 누가 보나?’라는 생각이 들 법 하지만 그곳엔 육아방도 존재했다. 아이를 보는 소음이 허용되는 곳이다. 방에서는 서로 육아 꿀팁, 꿀팁을 추천하기도 고민을 나누기도 한다. 물론 듣기만 하거나 때론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다는 게 클럽하우스의 장점이었다.

육아에만 집중해도 어려운 시간에 굳이 어딘가에 연결되어 있고 싶은 심리는 무엇일까. 일일이 물어보지 못했지만 내 경우를 설명해 보자면 ‘나만의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연결되어 있든, 단절되어 있든 누구나 나만의 공간이 필요하다. 육아 초기에 나만의 공간은 팟캐스트였다. 말이 통하기 전의 아이를 안은 내 귀에는 높은 확률로 블루투스 이어폰이 꽂혀 있었다. 그랬던 전력이 자연스럽게 클럽하우스로 옮겨 갔던 것이었다.

엄마도 아빠도 둘만의 시간이, 그리고 각자의 시간이 모두 필요한 존재다. 육아를 하다 보면 당연히 포기하게 되는 시간이긴 하지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잊고 말면 언젠가는 오해에 빠지게 된다. 육아 때문에 힘들다는 오해 말이다. 아이들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나만의 시간과 공간이 없어진 상황이 힘든 것은 아닌지 되물어야 한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서로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 정확하게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

두 아이를 키우는 4인 가족은 주류일까? 전통적으로 평범한 가정을 이뤘다는 것이 주류임을 인증해 주는 시대는 끝났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부모의 고민은 여기서 비롯되는지 모른다. 나를 잃어버리며, 비주류가 될 것만 같은 비통함. 나다운 삶을 살면서도 주류에 속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둘 다 못하게 될 것만 같은 상황에 처하는 것이다. 물론 비통함을 덮고도 남을 만큼 넘쳐흐르는 행복이 있지만 파더스하이(father's high) 사이에 문득 찾아오는 불안을 잠재울만한 논리가, 혹은 주제가 필요하다. 아직 나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하긴 어려운 것이 답답할 뿐이다. ‘아빠 찾아 삼만리’ 마지막 모임에서 “민망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라고 말한 아빠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누면 이 답답함이 좀 해소될지도 모르겠다.

강득주

김동준

유태선

이다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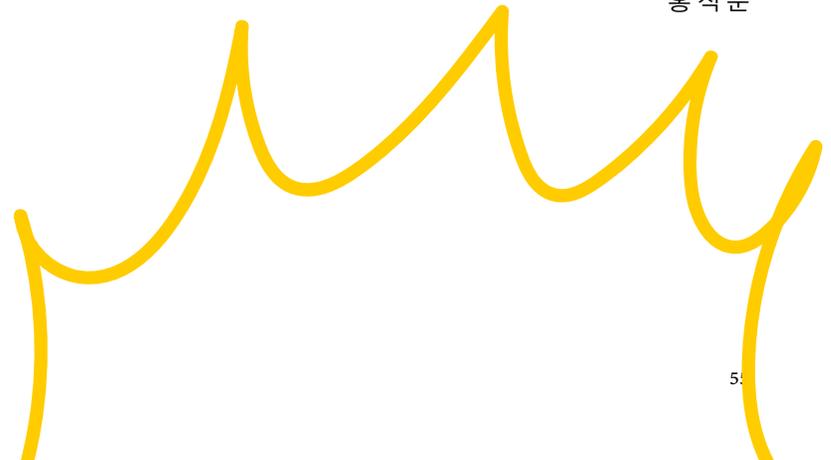
이준걸

홍석준



아빠가 많아진다는 건

홍 석 준



“자기가 그동안 고생 많이 했네.”

얼마 전 아내에게 처음으로 들은 말이다. 서로의 자리를 바꿔 지낸 지 3년이 조금 넘어가는 날이었다. 급한 글을 쓴다는 이유로 잠시 육아와 살림을 완전히 내려놓았다. 나 없이 아이와 단둘이 보낸 며칠이 지난 시점에 털어놓은 그녀의 진심은 옛날을 돌아보게 했다. 고생이라. 처음 아들과 꼭 붙어있기 시작하던 그뻘 그랬지. 이제는 추억이라 떠들 수 있는 장면을 웃으며 떠올렸다.

눈을 떴다 다시 눈을 감을 때까지 한 게 없었다. 정확히는 날 위해 한 일이 없었다. 기상과 함께 온전히 내 하루는 아이의 것이 되었다. 한 사람의 생활을 돌아가게 만드는 활동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닌데도 대단히 다른 걸 생각할 틈이 없었다. 일어나 씻기고 밥 먹이고 옷 갈아입히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개고 같이 놀고 다시 밥 먹이고 씻기고 옷 갈아입히고 함께 자고. 너무 똑같아서 반복인지도 알아채기 어려운 일상에 변하는 건 날짜와 계절 뿐이었다. 아, 까지 못해 길어지는 수염과 손발톱도. 이따금 기운이 조금 남아 아이보다 늦게 잠드는 밤이면 그제야 제쳐둔 질문이 찾아왔다. ‘오늘 나 뭐 했지?’

아이의 성장을 온몸으로 느끼는 기쁨은 굉장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을 눈앞에서 계속 볼 수 있는 건 축복이 맞았다. 엄마보다 아빠를 점점 더 찾는 광경은 어떤 절경 못지않았다. 비위두었던 내 자리를 찾아간다는 보람은 자주 날 쓰다듬었다. 그런데도 차면 빈다는 세상의 진리처럼 한쪽이 채워지면서 어쩐지 다른 쪽이 비는 게 느껴졌다. 나로만 가득 찼던 지난날과는 판도가 달라진 전업 아빠의 삶은 어딘가 공허했다. 풀리지 않는 복잡한 숙을 글자에 털어놓으면서 가까스로 균형을 잡았다. 글이 날 도운 건지 내가 글을 도운 지는 아직도 불분명하지만, 답 없는 잠자리 질문은 발길을 끊었다. 글이나마 남게 되자 고생만 하고 남은 게 없다는 허전함은 사라졌으니. 하지만 간신히 바로 서고도 여태까지 중요한 걸 빼먹은 줄

몰랐다. 아내의 고생하는 날 이해하게 되었다는 최근 고백을 듣기 전까지 전혀.

나보다 훨씬 먼저, 그것도 나처럼 자신의 선택이 아닌 세상에 떠밀려 배 속 아이의 탄생부터 홀로 남겨졌던 아내. 아무런 준비 없이 맞이한 어린 자식과의 밀착 동거는 쉽지 않은 날의 연속이었을 테다. 내 일이 아니라 여기며 머리로만 쉽게 굴려서 결론을 내리고 돌아섰다. 별다른 방법이 없으니 어쩔 수 없는 거라며. 우리 말고도 다 그렇게 산다는 간편한 핑계를 꺼내 보이며. 예쁜 아기와 엄마로 지내는 아름다운 모습이 당연하다고 확신하는 시간을 흘려왔다. 어찌나 흔들리는 그녀를 위로했지만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안쓰러운 상황을 향한 불만은 있었지만, 시원한 변화를 위한 행동은 멀리했다. 내게서 나와야 할 무언가가 있다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가끔 미안해하는 마음이 스쳐도 따로 전하지 않았다. 잘못을 하고 있다는 인정이 없었으니까. 티를 내지 않으면 모르는 둔감을 뽐내며 아내를 살피지 않았다. 나와 아이에게 웃어주면 다 괜찮은 줄만 알고.

나와 비할 바 없는 오랜 기간을 혼자 버텨온 그녀의 자리를 뒤늦게 맡았다. 자라는 아이와 모자란 나 사이에서 방황하며 지낸다. 자책과 반성은 마를 줄 모른다. 그나마 하고 있는 단 하나의 일을 망칠지 모른다는 불안은 생각보다 크다. 자신에게 사용할 시간은 늘 빈곤하다. 스스로 돌보지 못해 줄어드는 자존감을 키우긴 역부족이다. 밖에 나가지 않아 가뜩이나 좁은 속이 더 좁아진다. 원래도 나 말고는 보지 못했는데 점점 시야의 폭이 줄어드는 기분이다. 그래서일까. 내가 없을 땐 누가 대신 그랬겠냐는 의문을 한 번도 안 가졌다. 아내가 손에 쥐어준 정답 같은 힌트를 읽고서야 깨닫는다. 옆에서 알아주는 남편 없이도 묵묵히 지내온 아내의 시간을.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 그리고 치열한 맞벌이 생활 속의 주 양육자까지. 난 그녀의 정성을 고마워하지 않았다. 너의 일과 나의 일은 다르지 않다고 일축하며, 그따위 시시비비가 설 자리가 아니었는데도. 그녀도 처음이었을 우리의 아이를 키워내는 외로운 순간을 안아주지 못했다. 이미 물어두고 지나갈 뻔했던

아픔을 직접 해보고 나서도 또 놓칠 뻔했다.

육아하는 아빠가 된다는 건 단순한 역할의 변경이 아니다. 아이 옆에 있는 시간을 늘리는 일과의 변동만도 아니다. 가까운 옆 사람을 이해하는 시작이다. 부부가 동등해지는 출발점에 서려는 몸가짐이다.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 영원하지 않을 뜨거움만으로 하나가 되었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달라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이에 축복 같은 아이가 태어나도 변하는 건 없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서로 제대로 알려진 자세가 빠지면 새로운 생명의 돌봄은 안타깝게 흘러가기 쉽다. 누구 몫이 더 크다느니 누가 더 억울하다느니 차갑게 따지는 슬픈 장면으로, 오히려 육아는 절호의 기회다. 식어버린 열정을 대신할 끈끈한 연결고리로 쓴다면, 사랑하는 아이를 중심으로 단단해질 수 있다. 변치 않을 공통점을 심어두고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는 놀라운 관계로.

평등과 배려가 부족한 세상이다. 다르게 태어난 남과 여는 서로에게 이해받지 못한다. 만약 남녀가 붙어있는 가정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된다면 어떨까. 자신의 아이를 함께 돌보는 것만으로도 이해의 수준이 높아진다면, 여성과 남성의 기울어진 차이를 모르는 채하지 않는 인정이 집에서 생겨난다면,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그렇다면 해볼 만하지 않을까. 부족한 시선과 손발을 육아로 돌리는 아빠가 늘어난다면 달라질 거라 믿는다. 아이를 돌보는 일이 엄마에게 치우치는 게 당연하지 않다고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아빠. 그들이 세상에 드러나는 딱 그만큼,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아빠가 이끌어낼 변화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우리의 미래, 아이가 배운다. 난 엄마가 날 키우고 아빠는 돈만 버는 줄로만 알았다. 보고 자란 게 전부여서 그랬다. 우리 아들은 우리 부부 누구와 시간을 보내도 어색하지 않다. 한쪽이 없다고 불안해하지 않는다. 엄마와 아빠가 같이 자신을 길러내는 걸 경험으로 깨닫고 있다.

이렇게 자라 어른이 된다면 다음에도 똑같이 이어질 가능성이 나보단 훨씬 높지 않을까. 어쩌면 우리는 그저 내 아이 하나 키워서 세상에 내보내는 게 아닌지도 모른다. 우리가 사라질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귀한 사람을. 누군가의 배우자가 되고 부모가 되어 또 그다음을 이어갈 희망을.

안타까운 일이 많아지는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 여기저기서 애를 쓴다. 개인의 걱정은 크지만 마땅한 실천은 부족하다. 멀어서 할 수 없는 걸 바라기보단 가까워 바로 할 수 있는 걸 해보면 어떨지. 살아가는 이곳을 더 낫게 만드는 여러 일 중 하나인 육아의 참여처럼. 함께하는 육아가 만드는 기적은 끝이 없다. 아빠가 아빠가 되면 근사한 변화가 벌어진다. 아이에게 아빠를 되찾아주는 데서 멈추지 않고, 부부간의 이해를 넘어 남녀의 간극을 좁혀준다. 아빠가 많아진다는 건 아무리 봐도 좋은 일이다. 더 늦기 전에 아내에게 그때 혼자 고생하게 해서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전해야겠다. 더 좋은 일을 만들기 위해.

〈아빠가 모인다는 건〉

* 아빠찾아삼만리 프로젝트 후기

‘모임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나.’

초청받았을 때 처음 떠오른 생각이다. 나같이 특이한 사람이 여럿이 있어야 할 텐데 가능하려나. 육아하는 아빠로 돌아선 지 꽤 지났지만, 여긴 여전히 허허벌판인데. 숨기지 못한 걱정이 앞섰고, 참지 못해 말로도 꺼냈다. 참여할 만한 인원 찾는 게 만만치 않겠다고. 남 걱정 안 하는 나지만 유독 이 모임은 신경이 쓰였다. 흐지부지되면 기꺼이 참여하려고 꺼낸 의지가 머쓱해질 것 같은 마음의 손해가 아른거려서.

아빠를 다 모아 성사되었다는 소식은 믿기 어려웠다. 어디서 어떻게 모았을까. 육아하는 아빠가 이 정도나 있다니. 첫 모임 일정을 안내받고도 의심이 가득했다. 숨어있느라 만나기 어려운 이 아빠들은 어떤 사람일까. 무슨 사정이 있어 비주류의 대명사를 꿰차고 있는 건지. 혹시 절망에 가득 차서 구원을 바라고 모여든 게 아닐까. 서로 힘든 무리는 남을 도울 힘이 없을 텐데. 나도 아직 내 자리가 정리가 안 돼서 어색하고 땃땃하지 못한데 전부 이러면 대화가 진행이 되려나. 나처럼 육아하는 날 알아주는 곳이 없어 억울하고 지질한 마음을 풀지 못해 답답해서 나오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 방법이 없어도 수다라도 떨면 마음은 잠시 달랠 수 있으니까. 어두운 상상만 잔뜩 안은 채 주뻗주뻗하며 첫 만남을 시작했다.

전혀 아니었다. 진심 가득한 우리의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다. 누구도 그러려고 모이지 않았다. 아이와 아빠를 담은 생각을 공유했지만, 여전히 그 중심은 자신이었다. 아빠라는 역할도 하는 남자의 이야기. 목소리를 낼 곳이 없어 담아두었던 신념.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이 시대의 특이한 아빠로 살아가는 속사정.

지금의 모습을 향한 의문, 망설임, 고민, 후회, 반성, 막막함, 그리고 다짐과 소망까지 다채롭게 채워졌다. 살면서 가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상념을 나누면서, 결국 이 자리는 자기 삶을 걸어가는 사람의 모임이었다. 어디서도 할 수 없는 자유로운 말들을 주고받으며 허락된 짧은 순간을 지나쳤다.

같은 자리에 있는 우리는 서로를 열어두고 바라봤다. 열지만 비슷한 테두리 안에 속해있기에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웃어주며. 그 시간이 좋았다. 남자로서도 아니고 아빠로서도 아닌,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마주할 수 있어서. 이 사람은 이렇구나, 저 사람은 저렇다며 듣고 느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편안했다. 그 제야 알았다. 우린 이러려고 만났구나. 애초부터 이러려고.

이 자리를 빌려 세상에 필요한 뜻깊은 모임을 만들어 이어가는 서울문화재단과 아무나 할 수 없는 역할을 기꺼이 맡아 꾸려가는 윤푸름, 최형욱 예술가에게 감사와 존경을 전한다.

